

보도설명자료

('22. 12. 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지 않음

(12.8일 한겨레 「한국은 재생에너지 줄이는데... IEA “3년 내 최대 발전원”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태양광 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3년 안에 석탄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
-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거꾸로 가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지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 바,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

<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(단위 : TWh) >

		원전	석탄	LNG	신재생*	무탄소	기타	합계
9차	발전량	146.4	175.1	136.6	121.7	-	6.0	585.8
	비중	25.0%	29.9%	23.3%	20.8%	-	1.0%	100%
10차(안)	발전량	201.7	122.5	142.4	134.1	13.0	8.1	621.8
	비중	32.4%	19.7%	22.9%	21.6%	2.1%	1.3%	100%

- '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(Top-down)으로 설정되어,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다한 수치임
 -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,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-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, 이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함
 - 다른 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리한 여건*임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'30년에는 현재 대비 3배 수준인 21.6%로, '36년에는 30%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
- * 독일은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3.6배, 일본은 3.8배 규모
-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를 연 3.5GW 보급하였으나, 동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'30년까지 연 5.3GW 내외 보급이 필요

※ 문의 :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
이디도 서기관(044-203-3885)